

남녀결연서사 속 모티프들로 본 한국의 혼인에 대한 인식*

- 설화를 중심으로

전주희**

<차례>

1. 서론
2. 이물교혼과 변신 모티프: 관계에서 차이의 완화 혹은 심화
3. 혼인인정 모티프: 사회적 승인이 필요한 불완전한 결합들
4. 혼인풍습의 굴레: 비슷함을 안전으로 승인하는 권력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남녀결연을 주제로 하는 설화 <우렁각시>, <구렁덩덩신선비>, <두꺼비 신랑>, <선녀와 나무꾼>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몇 가지 모티프들,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소재들이 결합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서사에서 기능하는 역할, 그리고 사건들에 배경화된 사회적 시선과 규율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옛이야기에 나타난 남녀 결합과 혼인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을 살피는 문화 연구이기도 하다. 먼저 2장에서는 이물교혼·변신 모티프가 결속된 이야기에서 이들 모티프의 기능과 의미를 탐구한다. 여기서 변신은 양자 간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결합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차이를 심화시켜 영영 분리하게도 하는 기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곧 이야기에서 남녀의 결합은 모종의 '균형'이 요구되며 변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서사적 장치로서 나타난다. 3장에서는 혼인인정 모티프에 나타나는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혼인 승인 양상을 주목하였다. 두 남녀의 결합을 시기·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반대 인물들은 사실 남녀의 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에서는 주로 우등한 쪽의 배우자 가족이 상대 배우자의 자격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조교수

검증한다. 결국 부모와 집안으로부터 혼인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남녀 주인공들은 대체로 부모의 허락 없이 결합하였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부족해 보이는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남녀의 결합에 부모가 개입되고 비슷한 조건의 짝을 찾으려는 한국의 혼인 문화를 반영한다. 4장에서는 자녀의 혼사를 주도하는 부모의 권력, 혼인 주체들 간의 애정보다는 그들이 가진 조건들의 비슷함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배우자 선택 문화를 지적한다. 이는 근대에 ‘자유연애’라는 신기한 용어를 탄생시킨 전통적인 혼인의 굴레이지만, 현대의 혼인 풍조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옛이야기에서 혼인 주체들이 지녀야 하는 조건의 ‘비슷함’ 및 관계의 ‘균형’은 변신 모티프를 통해 극복되며, 자녀의 성인식으로서 혼인을 허락하는 부모의 힘은 혼인인정 모티프에 나타나는 자격·인정 시험을 통해 결국 남녀 부부에게로 이양된다. 이러한 혼인 문화는 문화권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기도 하지만, 본고는 한국의 옛이야기에서 변신 및 혼인인정 모티프가 이를 드러내는 방식과 기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남녀결연서사, 모티프, 변신, 이물교혼, 혼인인정, 비슷함, 균형

1. 서론

한국문학에서 남녀결연서사는 장르를 불문하고 인기 있는 소재이지만, 남녀 주인공의 혼인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혼사장에 소설로 손꼽히는 「숙향전」, 「白鶴扇傳」, 「정을선전」 등과 같은 고전소설에는 남녀가 혼인하기까지 갖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다. 장르가 소설이다 보니 주인공들이 이러한 난관들을 거치는 과정을 설정하여 대중 독자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물론 남녀의 애정을 소재로 하는 모든 소설이 반드시 이러한 양상을 띠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남녀 결합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설화에 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고전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설화에

는 혼인 ‘전’이 아니라 혼인 ‘후’에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결연 이후에 서로 이별하고 재결합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렁각시>, <선녀와 나무꾼>, <구렁덩덩신선비>, <도랑선비와 청정각시> 등이 모두 그러하다.

집단이 구성하는 사회문화에 따라 선호하는 이야기 소재와 서사 구조가 있기에, 이러한 양상은 한국인이 남녀의 결합 및 혼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전통구술담화는 오랜 시간 집단이 함께 생성하고 다듬어 온 이야기이므로 향유층의 사유를 비교적 명료하게, 보수적인 형식과 내용으로서 반영한다. 옛이야기가 ‘명료하다’ 함은 사건의 진행에서 서술자의 묘사, 다른 소소한 위성 사건들 없이 오로지 주요 인물들의 행위와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뜻이며, ‘보수적’이라 함은 옛이야기의 형식이나 내용이 잘 바뀌지 않고 일정 단위로 잘 유지된다는 뜻이다. 설화에서 모티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모티프 단위로 일정한 사건이 형성되는 것은 구술문학 특성상 기억과 전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그러한 모티프가 형성하는 사건의 내용과 형식이 집단의 취향에 따라 굳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설화의 남녀결연서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모티프들의 결속은 ‘변신-이물교환-혼인인정’으로 나타난다. 반드시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들 모티프들이 나타나고 결합하는 양상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는 남녀결연을 소재로 하는 옛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형성하는 모티프들의 결합 양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모티프들이 서사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밝힌다. 또한 남녀의 혼인을 바라보는 이야기 속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승인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정의 과정과 변신 모티프가 의미하는 바를 밝힌다. 혼인은 남녀가 성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존속하게 할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례이다. 곧 해당 사회의 구성원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의 결합과 혼인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남녀 개별 관계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집단과 사회의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하기에 혼인하려는, 혹은 혼인한 남녀를 소재로 하는 옛이야기를 살펴으로써 혼인을 바라보는 해당 집단의 관점, 가치, 정서, 윤리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모티프들 - ‘변신’, ‘이물교혼’, ‘혼인인정’ 모티프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충분한 합의를 본 것들이 아니다. 위의 용어들은 ‘변신 설화’, ‘이물교혼 설화’, ‘혼사장애¹⁾ 소설’ 등과 같은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와 관련한다. 하지만 남녀결연서사라는 큰 주제 안에 이러한 소재 단위들이 모두 발견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들을 모티프로서 다루기로 한다. 모티프 설정의 기준을 기계적·수학적으로 딱 잘라 정할 수는 없다. 많은 연구에서 아르네-톰슨(Aarne-Thompson)을 많이 인용하지만, 사실 세계의 무수한 이야기를 이 모티프에 맞추어서 논할 수만도 없다. 일단 한국의 남녀결연서사에는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이라는 하위의 사건 단위들이 존재하며, 다른 주제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모티프’로 설정하여 논의한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우렁각시>이며, 필요에 따라 <구렁덩덩신선비>, <두꺼비 신랑>, <선녀와 나무꾼>, <쥐(두더지) 사윗감 찾기> 등의 관련

1) ‘혼사장애’는 작품 속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단 보류되거나 일시적인 파국을 초래하고, 갖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 이를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인 혼사확인(또는 인정)까지의 갈등(손찬식, 『문학: 고대설화에 나타난 혼사장애의 성격』, 『온지논총』 11권, 온지학회, 2004, 45쪽)을 뜻한다. 본고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혼인인정’은 그 강조점이 혼사 자체에 있지 않다. 혼사를 포함하여, 혼례를 치른 이후에 부부가 결합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제반을 뜻한다.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수용한다는 의미에 강조점이 있으며 그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이다.

이야기들을 예로 든다. <우렁각시>가 추가 되는 이유는 이 설화 자체가 남녀결연을 주제로 하며, 이본에 따라 앞서 언급한 ‘변신-이물고혼-혼인인정’ 모티프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녀결연서사에 속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결합으로서 혼인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 없이,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 맺는 <아래자 설화>, <강감찬 설화(여우와 결합하여 난 아들)>, <여우구슬> 등의 이야기는 제외한다. 기록된 신화로서 전해진 <환웅과 웅녀>의 결합 이야기 또한 제외한다. 이는 <아래자 설화>, <강감찬 설화>처럼 이물과의 결합으로 인해 얻은 자손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계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한쪽의 변신 과정도 없는 <곰나루 설화>도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그동안의 설화 연구에서 ‘남녀결연서사’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개별 텍스트에서 남녀가 결합을 위해 ‘고난’을 겪는 과정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논의한 연구가 있다. 고난의 양상을 통해 서사를 분류하거나²⁾ 이야기를 사회문화 혹은 의례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한 연구들³⁾이 그러하다.

한편 신연우⁴⁾는 <구렁덩덩신선비>에 나타난 뱀, 허물, 남편찾기 여정, 겨루기 등 상징들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야기는 결국 아내가 혼인 자격을

2) 손찬식, 「문학·고대설화에 나타난 혼사장애의 성격」, 『은지논총』 11권, 은지학회, 2004, 43~62쪽.

3) 한양하,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67~100쪽.

민선홍, 「민담 <구렁덩덩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결혼 후 통과의례담의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제5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5~34쪽.

김용선,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 속 ‘허물’과 ‘아내 고행’의 의미 - 동물 토렘에서 기인한 가부장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은지논총』 69권, 은지학회, 2021, 111~139쪽.

4)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121~150쪽.

갖추기 위한 변화와 성숙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여성 캐릭터는 <손없는 색시>에 이르러서는 더욱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조홍윤⁵⁾은 같은 설화를 두고 두 부부가 남-녀 관계에서, 사람-사람의 관계로 이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계 맺음의 보편적 원리로서 서로 상대를 바라보는 긍정적 속성을 바라보면서, ‘허물’이라는 부정적 속성까지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이야기 속 혼인 주체들의 변신, 이별, 재결합 등을 부부가 함께 이뤄야 할 하나의 ‘성장’으로서 해석하면서 혼인의 의미를 밝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외에 <우렁각시>에서 남녀가 헤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합하는 결말이 많아지는 양상을 신성혼 의식이 약화하고 점차 세속화된 것으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⁶⁾ 이야기가 남녀의 만남을 다루고 있기에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부부 상담 및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경우도 적지 않다.⁷⁾ 그중에서 남녀결연서사의 중심이 ‘나’와 ‘세상’에 있는지, ‘소망(욕구)’과 ‘법칙’에 있는지에 따라 각각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

5) 조홍윤,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통해 본 ‘관계 맺음’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4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6, 191~230쪽.

6) 유진아,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개정·증보 사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0집, 동양고전학회, 2018, 467~493쪽.

7) 조은상,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유형과 자기서사와의 관련 양상,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01, 291~327쪽.

서은아, 「<구렁덩덩신선비>를 이용한 부부상담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과 교육학회, 2006, 181~212쪽.

이동희,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해석: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남녀관계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독서치료학회, 2015, 117~128쪽.

이승민, 김정애, 「신선비를 중심으로 본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의 불균형적 관계 맺기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6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37~71쪽.

서사로 나누어 서사 세계의 성장 단계를 제시한 연구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된다.⁸⁾ 결연의 양상과 서사 흐름을 통해 혼인 주체의 독립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이물교혼⁹⁾이나 변신 모티프¹⁰⁾에 주목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으나, 이들을 남녀결연서사의 맥락에서 연구하여 그것의 서사적 기능과 사회 문화적 의미를 밝힌 경우는 없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한 혼인의 의미를 ‘변화’를 통한 ‘성장’과 ‘성숙’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혼인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이야기의 메시지보다는 이야기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당연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낫설게 보는 작업을 시도한다. 곧 주인공들의 혼인 과정과 결혼생활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들로서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모티프들이 이야기에서 기능하는 방식과 활용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남녀결연 및 혼인에 관한 인식을 탐구한다.

먼저 2장에서는 변신 모티프가 남녀의 결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여기서 ‘변신’은 일차적으로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변화를 뜻하며, 나아가 태도·정신에서 일어나는 비가시적 변화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변신은 두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둘의 결합을 완성하거나 오히려 차이를 심화시켜 둘을 완전히 분리하기도 한다. 3장에서는 ‘혼인 인정’의 모티프를 분석하여 두 남녀의 결합을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승인의 양상을 살핀다. 결합하는 남녀에 대한 주변 인물의 반응은 사회적 시선이며 그것은 집단이 상정하는 어떤 세계의 질서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혼사를 결정하고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통해

8) 김중균, 「남녀결연서사 유형에의 기초서사 이론 적용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12집, 한국문화치료학회, 2009, 9~34쪽.

9)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어문학회, 1990, 173~203쪽.

10) 이원영, 「<두꺼비 신랑> 설화 속 인정육구와 변신의 대응양상」, 『동방학』 제3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195~228쪽.

한국 서사에서 남녀의 결연과 혼인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 두 가지인 ‘부모의 허락’과 ‘조건의 비슷함’에 관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다른 옛이야기들과 서사 장르들을 2, 3장의 논의와 연결하면서 한국 문화에서 혼인의 규칙과 그것을 통솔하는 사회문화적 권력을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한국의 혼인 문화가 근대 소설의 자유연애라는 주제를 파격적으로 보이게 만든 뿌리 깊은 굴레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모티프들이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야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핌으로써 모티프의 서사적·화용론적 기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이물교혼과 변신 모티프: 관계에서 차이의 완화 혹은 심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우렁각시>의 다양한 결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우렁색시>, <고동각시>, <달팽이 각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되며, <선녀와 나무꾼>처럼 행복한 결말과 비극적 결말이 있다. 사실 구연자에 따라 서사의 길이, 결말이 아주 다양해서 어떤 결말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우렁각시>는 남녀가 결합하는 데 변신 모티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설화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이 이야기를 공통 서사를 기본으로 하고, 2) 원혼형, 3) 아내내기 시합형, 4) 새털옷 신랑형¹¹⁾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¹²⁾

11) ‘원혼형’, ‘아내 내기 시합형’, ‘새털옷 신랑형’의 분류와 서사 단락은 유진아(2018)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유진아는 이 분류에 ‘지하국 대적 퇴치형’을 새로 넣었지만,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공통 서사

- 가. 신세를 한탄하던 총각이 일을 하다가 우렁이를 발견한다.
- 나. 우렁이를 가져와 농(물 항아리)에 보관한다.
- 다. 총각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다.
- 라. 총각이 이상히 여겨 일을 나가지 않고 몰래 지켜보다 우렁이가 예쁜 처자로 변하는 것을 본다.
- 마. 총각이 같이 살자고 하자, 우렁각시는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 바. 총각은 기다리지 않고 떼를 써서 우렁각시와 같이 살게 된다.

2) 원혼형

- 사. 우렁각시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총각에게 점심을 가지고 가던 중 원님(임금)에게 발견된다.
- 아. 원님(임금)이 우렁각시를 데려간 것을 알게 된 총각은 원통하여 죽게 된다.
- 자. 새가 된 총각은 우렁각시를 찾아가며, 총각(또는 우렁각시)은 모든 것이 시어머니 탓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3) 아내 내기 시험형

- 사. 우렁각시의 미모가 소문이 나 임금의 귀에 들어간다.
- 사. 우렁각시의 화상(化像)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우렁각시의 존재가 임금에게 알려진다.
- 아. 임금은 우렁각시를 빼앗기 위해 총각에게 내기를 제안한다.
- 자. 총각은 용왕(우렁각시)의 도움을 받게 된다.
- 차. 총각은 용왕이 제공한 물건(우렁각시의 지혜)으로 임금을 이기고 우렁각시를 차지한다.

12) <우렁각시> 외에 다른 구술텍스트는 필요에 따라 원전을 각주에 표기한다. 다만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 그것을 대표로 제시한 것뿐이다. 해당 주제의 이야기 목록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 분량을 많이 차지할뿐만 아니라, 본고가 특정 담화의 구연 양상이나 변천상을 집중해서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하였다.

4) 새털옷 신랑형

- 사. 우렁각시의 화상(化像)이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우렁각시의 존재가 원님 (임금)에게 알려진다.
- 사' 우렁각시는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총각에게 점심을 가지고 가던 중 원님 (임금)에게 발견된다.
- 야. 임금은 우렁각시를 데려간다. 우렁각시는 가면서 총각에게 활쏘기 등의 훈련을 하여 새털옷을 입고 찾아오라고 한다.
- 자. 임금이 우렁각시를 위해 잔치를 베풀자 총각은 새털옷을 입고 우렁각시를 찾아간다.
- 차. 우렁각시가 새털옷을 입은 총각을 보고 옷자 임금은 총각의 새털옷을 대신 입는다.
- 카. 총각은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이 되어 우렁각시와 행복하게 산다.

<우렁각시>는 구연자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지고 그 결말이 다양하여 이야기를 하나로 완결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위의 서사 단락들은 그러한 변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이야기에서 변신 모티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가시적·육체적인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성숙한 성장으로서 '태도'와 '정신적 변화'이다. 우렁각시는 전자의 변신만을 경험한다. 그러나 총각은 이야기에 따라 두 가지 차원의 변신을 모두 보이기도 한다. 우렁각시의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변화는 우렁이가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변신은 우렁이의 '비범함'을 나타내면서도 총각과의 관계에서는 양쪽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우렁이와 총각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종이며,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물교환 설화에서 동물이었던 인물은 인간으로 변신하여 배우자와 결합한다. <구렁덩덩신선비>, <두꺼비 신랑>도 마찬가지이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 구렁이는 장자네 막내딸과 결혼한 첫날 밤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한

다. <두꺼비 신랑>에서 두꺼비도 신혼 첫날 밤에 아내에게만 자신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변신은 동물-인간의 결합이 지나는 혐오와 긴장을 없애며, 결과적으로 종간 차이를 해소한다. 그러므로 이물교혼 모티프는 다음과 같이 거의 항상 변신 모티프를 수반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변신으로 인한 차이 해소

인간 ≠ 우렁이(비인간) / 우렁이 → 처녀 변신 / 총각 + 우렁각시
 인간 ≠ 구렁이(비인간) / 구렁이 → 남자 변신 / 막내딸 + 신선비
 인간 ≠ 두꺼비(비인간) / 두꺼비 → 남자 변신 / 막내딸 + 두꺼비 신랑(밤에는 인간)

한편, 우렁이가 여자로 변신함으로써 이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극복되었지만, 가난한 총각과 예쁜 색시의 결합은 여전히 또 다른 ‘차이’를 남긴다. 한국의 옛이야기에서는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면 다른 이보다 출중한 면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변신 행위 자체가 행위 주체를 비범한 존재로 보이게 하므로, 변신을 통해 어떤 차이를 극복한다고 해도 변신 주체가 지닌 비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인으로 변한 우렁각시도 마찬가지이다. 우렁각시는 그 미모가 아주 뛰어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결국 임금까지 알게 된다. 그러한 속성은 총각과 우렁각시 사이에 또 다른 차이를 낳는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총각과 아름다운 여인이 부부라는 사실을 원님(임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으려는 원님의 횡포는

13) <두꺼비 신랑>에서 아내는 두꺼비에게 시집와서 멀리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자결하려고 하자, 두꺼비는 그 칼로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한다. 아내가 그렇게 하자 두꺼비 신랑은 가족을 벗고 남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낮에는 두꺼비, 밤에 아내와 있을 때는 사람으로 지내던 두꺼비 신랑은 서사 후반부에 가서야 과거에 급제하고 가족을 벗어 귀인으로 변신함으로써 처가 식구들에게 인정받는다.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우렁각시> 이야기는 총각과 우렁각시가 함께함으로써 빚어지는 불균형과 우열 관계를 원님의 훼방과 간섭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소위 신성혼이라고 불리는 부부 관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이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남자와 고귀한 출신의 여성이 결합할 때, 늘 남자는 그러한 여인의 남편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치러야 했던 시험이 동일하게 <우렁각시>의 총각에게도 적용된다.

〈표 2〉 <우렁각시>에서 관계의 불균형

총각 ≠ 우렁각시 → 총각의 가난, 무식 < 우렁각시의 아름다움
(원님의 지위, 부귀 = 우렁각시의 아름다움)

따라서 변신의 두 번째 차원, 곧 개인의 ‘정신적·사회적 성장’을 뜻하는 변화로서의 변신이 남편 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남녀의 불균형 상태를 또 한 번의 변신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아내 내기 시합형’과 ‘새털옷 신랑형’에서 나타난다. 아내 내기 시합형에서 남편은 아름다운 아내를 원님(임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원님에 버금가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그만한 지위를 자기도 차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남편은 처음에는 그럴 힘이 없지만, 우렁각시의 아버지인 용왕이나 우렁각시의 도움을 통해 원님(임금)과의 경쟁, 곧 나무 심기(활쏘기), 바둑 두기, 말타기 등에서 모두 이긴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은 대체로 남성성을 시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편이 진정한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를 거침으로써 성장한 것, 곧 변신한 것으로 은유한다. 이야기에 따라 경쟁에 이긴 총각이 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렁각시와 재결합하는 이야기도 있다.

〈표 3〉 <우렁각시>에서 관계의 균형

총각의 강한 남성성, 사회적 지위 = 우렁각시의 아름다움

새털옷 신랑형에서도 남편은 아내가 헤어지면서 부탁한 것에 따라 활쏘기 3년, 글쓰기 3년, 뿔뿔기 3년을 연마하여 새털옷을 입고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찾아간다. 우렁각시는 임금에게 온 뒤로는 한 번도 웃지 않다가 몇 년 만에 찾아온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웃는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새털옷을 입으면 아내가 웃을까 싶어 새털옷 신랑을 불러 옷을 벗어달라고 한다. 원님이 새털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우렁각시는 신랑에게 활 삼 년, 글 삼 년, 뿔뿔기(눈치) 삼 년 배웠으면 뭐 하냐고 말한다. 그러자 신랑은 활로 임금을 쏘고, 뿔뿔기로 뛰어와 벗어둔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이 되어 각시를 되찾아 살게 된다.¹⁴⁾ 새털옷 신랑의 변신은 임금의 의복에 의해 가시적으로 일어나며, 여기서 임금의 옷 자체는 사회적 지위와 부귀를 상징한다. 임금의 옷을 가로챌 기회를 만들어 낸 것 자체가 남편이 수년간 아내를 되찾기 위해 닦아온 수련을 거쳐 일어난 변신이자 사회적 성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신은 한쪽 배우자의 열등함을 완화하고, 두 사람의 차이를 균형적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쪽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이룬 변신·변화가 두 사람의 부부 관계를 공식화한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도 이러한 성장과 성숙으로서의 변신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자에서 언니들의 모함에 빠져 남편이 소중하게 다루라고 한 허물을 잃어버린 아내(막내딸)는 소중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미숙

14)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한국구비문학대계, <우렁이 색시 덕에 임금된 사람>, 권옥이 구연.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A%B0%EB%A0%81%EC%9D%B4%20%EC%83%89%EC%8B%9C%20%EB%8D%95%EC%97%90&id=POKS.GUBI.GUBL1_15527&pageUnit=10&pageIndex=1, 접속일자: 2024.06.10.

함'과 '부주의함'의 자질을 지닌다. 이는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하여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신선비의 '성숙함'과는 대비된다. 물론 옛이야기에서 금기를 어긴 인물은 비극적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남녀결연사에서 금기를 어긴 쪽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 아내는 신선비를 찾아 떠난 여정에서 여러 존재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마침내 그가 살고 있다는 집을 찾지만, 이미 신선비는 새로운 부인과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만, 자신과 다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부인과 경쟁하여 모든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아내는 두 번째 아내보다 자신이 더 나은 아내임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남편은 나막신을 신고 물동이에 물을 떠오되 한 방울도 흘리지 말 것, 호랑이의 눈썹을 뽑아올 것을 제안한다. 결국 아내는 이 시험들을 통해 조심성과 신중함은 물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지녀야 할 인내와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남편과 재결합한다.¹⁵⁾

〈표 4〉 <구령당명신선비〉에서 관계의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이동
 아내(막내딸) ≠ 신선비 → 아내의 미숙함, 부주의함 < 신선비의 성숙한 남성성
 아내의 신중함, 인내, 용기 = 신선비의 성숙한 남성성

하지만, 변신은 오히려 두 사람의 차이를 더 심화시켜 그들의 결합 관계를 아예 깨뜨리고 분리하기도 한다. <우렁각시>의 원혼형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남편은 아내를 원님(임금)에게 뺏기고 원통한 나머지 울다가 죽어서 '새'(접동새 혹은 뻘새)로 변신한다. 새는 아내의 곁에 날아와서 “넌들난 내 닻이냐. 난들난 내 닻이냐. 우리 어머니 장 닻이다.”¹⁶⁾라고 운다.

15)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한국구비문학대계, 이남이 구연, <뱀신랑>.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B1%80%EC%8B%A0%EB%9E%91&id=POKS.GUBI.GUBI.1_8614&pageUnit=10&pageIndex=1, 접속일자: 2024.06.10.

이본에 따라 이렇게 매일 날아오는 새를 원님이 담뱃대로 때려서 새가 죽기도 한다. 앞서 본 새털옷 신랑형에서는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다시 찾아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여지가 있지만, 원혼형은 남편이 죽어 새(鳥)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합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결합하기 전 모습인 총각과 우렁이 처럼,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죽은 원혼이 반드시 새로 변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가 된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결합할 수 없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 5〉 <우렁각시>에서 변신을 통한 차이의 심화와 분리

남편 → 새(鳥) / 새(비인간) ≠ 우렁각시(인간) / 새 ↔ 우렁각시

남편 → 원혼 / 원혼(망자) ≠ 우렁각시(생인) / 원혼 ↔ 우렁각시

변신은 이러한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계속 생성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물론 이야기에서 이러한 차이를 뚜렷하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서사 자체는 두 사람의 차이를 좁히거나 벌리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하다못해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는 존재의 결합이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보다 더 어려운 간극을 보인다는 것은 <도랑선비청정각시>에서 잘 나타난다. 이 이야기에서 청정각시는 신혼 첫날 죽은 남편(도랑선비)을 만나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몇 번이고 겪어야 한다. 결국 망자와 생인 간의 존재적 차이는 청정

16) 한국학자료를통합플랫폼: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사봉 구연, <우렁색시 (2)>.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A%B0%EB%A0%81%EC%83%89%EC%8B%9C&id=POKS.GUBI.GUBI.1_15513&pageUnit=10&pageIndex=2 남편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 바깥 출입하는 것이 걱정스러워 어머니에게 절대 며느리에게 밥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이를 어기고 며느리를 바깥에 내보내는 바람에 원님에게 들켜 잡혀갔다는 이야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접속일자: 2024.06.10.

각시의 자결을 통해 극복된다.¹⁷⁾ 망자가 이승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생인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저승으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이야기에서 변신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녀가 온전히 결합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차이가 소거되고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부부의 결별은 결정적으로 나무꾼이 금기를 어긴 탓이지만, 나무꾼의 변신으로 인

17) <도량선비청정각시>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청정각시가 도량선배(선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도량선배가 신부 집에 이르렀을 때 정성이 혼비백색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신부 집에서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혼수를 불에 태우는 등 여러 방편을 취하였으나,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 오시(午時)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신부에게 말하였다. 신부는 정회수를 떠 놓고 부처님과 하느님에게 지성으로 기도하였으나 신랑은 죽고 말았다. 신부는 신랑의 시체를 매장하고 밤으로 슬피 울었다. 신부의 곡성이 하늘 옥황상제에게 닿았고, 옥황상제는 황금산 성인을 시켜 이유를 알아 오게 하였다. 성인은 신부를 만나 슬픈 사연을 듣고 남편을 보려면 신랑의 무덤 앞에서 사흘 동안 지극한 정성을 드리라고 하였다. 신부는 사흘 동안 정성을 드리 남편을 잠깐 보았으나 남편은 즉시 사라지고 말았다. 신부가 다시 성인을 부르자, 성인은 “신부의 머리를 모두 뽑아 삼천 발의 노끈을 꼬고, 안내산 금상철에 가서 한 끝은 범당에 걸고 다른 한 끝은 공중에 걸고, 신부의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노끈을 꿰어 삼천 동녀(三千童女)가 울러 훑고 내리 훑어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였다. 신부는 그대로 실행하여 남편을 만났으나 남편은 다시 곧 사라졌다. 신부는 또다시 성인을 불러 남편 만나기를 청하였다. 성인은 신부에게 참깨 닷 말, 들깨 닷 말, 아죽깨 닷 말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에 열 손가락을 찍어서 말린 뒤에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부처에게 발원해 보라고 하였다. 신부가 그대로 실행하자 남편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신부가 또 간청하자 성인은 안내산 금상철로 가는 고갯길을 맨손으로 뚫으라 하였다. 신부는 길을 뚫다가 남편을 만났고, 함께 내려오다가 다리를 건널 때 그만 남편이 물속으로 빠졌다. 이때 남편이 신부에게 ‘자결하는 길만이 자기를 만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사라져 버렸다. 신부는 자결하여 저승에 이르렀는데, 저승에는 이 신부가 천하에서 제일 지성(至誠)한 사람이니 좋은 곳에 있게 하라는 옥황상제의 편지가 와 있었다. 신부는 남편을 만나 무한한 낙을 누리다가 인간으로 환생하여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3513&cid=46643&categoryId=46643>, 접속일자: 2024. 06. 10.

하여 두 사람이 재회할 수 있는 희망은 영영 없어지고 만다. 나무꾼은 지상에서 울다가 수탉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우렁각시>의 총각처럼 인간에서 동물로 변신하게 되므로 존재 간 차이는 심화되며, 이로써 둘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표 6〉 〈선녀와 나무꾼〉에서 변신을 통한 차이의 심화와 분리
 나무꾼 → 수탉 / 수탉(비인간) ≠ 선녀(초인) / 수탉 ↔ 선녀

그러므로 변신 모티프는 남녀결연을 주제로 하는 설화에서는 변신 주체의 신이함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두 남녀 관계의 차이를 극복하여 평형을 이루게 하거나, 아예 그 차이를 심화시켜 완전히 결별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에서 변신은 ‘관계’ 안에 존재하는 ‘차이’를 전제로 기능하며, 두 존재의 차이가 뚜렷한 이물교혼 모티프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변신 모티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혼인인정 모티프: 사회적 승인이 필요한 불완전한 결합들

지금까지 다룬 옛이야기들에는 이미 혼인한 부부의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이 항상 등장한다. 그러한 반대 인물들은 둘 사이를 시샘하거나 질투하고 조건이 기우는 쪽 배우자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시험이나 경쟁을 요구하는데, 이는 주로 우등한 쪽의 배우자나 그 가족에서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관계를 다시 인정받게 만드는 서사가 전개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는가?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러한 주변 인물들

의 방해와 시샘은 남녀 결합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닿아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하다면 주변 인물들은 이들에게서 아무런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빈틈을 비집고 문제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의 결합에 있어 사회가 ‘기피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대 인물들이 두 남녀의 결합을 문제삼을 만한 상황은 무엇일까? 만약 양쪽 집안의 공식적인 허락없이 두 남녀가 만났기 때문이라면 <우렁각시>, <선녀와 나무꾼>은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내 쪽 가족들의 인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로 이들 이야기에서는 신랑이 처가 식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렁덩덩신선비>, <두꺼비 신랑>의 경우는 이미 양쪽 집안에서 둘의 결합을 허락했음에도 결합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두꺼비 신랑>의 경우 사위의 모자람을 빌미로 처가 식구들의 박대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2장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부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옛이야기에 나타난 혼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룬 남녀 결합과 2) 비슷하지 않은 조건의 남녀 결합이다. 남녀의 결합을 소재로 하는 한국문학의 서사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면 혼인인정 모티프에 나타난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승인, 그리고 이야기 세계의 질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룬 남녀 결합

남녀의 혼사가 성사되는 데 양쪽 집안의 허락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건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혼인 풍속이 문학에 드러나는 양상과 모티프의 활용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설화에서는 양쪽 집안의 허락 없이 남녀가 결합하는 것은 미완의 혼

인으로 인식된다. <해모수 신화>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야합(野合)을 거의 죄악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가 지상에 내려왔다가 하백의 딸 유화를 만나 정(情)을 통했다. 유화의 아버지인 하백이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해모수를 문책하자, 해모수는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며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한다고 말한다(高族請相累). 하백이 ‘혼인은 큰 일’(婚姻是大事)이라 ‘중매와 폐백의 법’이 있는데(媒贄有通法)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한다며 나무란다. 하백은 해모수가 정말 천제의 아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로 변신하여 대결한다. 하백이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이 되어 잉어를 잡으려고 하고, 하백이 사슴이 되자 해모수는 승냥이로 변신한다. 다시 하백이 꿩이 되자 해모수는 매가 되어 덫비려고 하니, 마침내 하백은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유화와 혼인하게 하였다. 이후에 하백은 해모수가 달아날 것을 염려하여 해모수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딸과 함께 가죽 수레에 가두었으나, 해모수는 유화의 황금 비녀로 가죽 수레를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이 딸을 책망하여 입술을 잡아당겨 석 자나 늘어 놓고 비복 두 사람만 주어 우발수로 추방하였다.¹⁸⁾

18) 『국역동국이상국집』 I 「동명왕편」, 민족문화추진회, 1980, 130~133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海東解慕漱 真是天之子 初從空中下 身乘五龍軌 從者百餘人 騎鵠粉繡襪 清樂動鏘洋 彩雲浮旖旎 自古受命君 何是非天賜 白日下青冥 從昔所未視 朝居人世中 暮反天宮裡 吾聞於古人 蒼穹之去地 二億萬八千 七百八十里 梯棧躡難升 羽翮飛易瘁 朝夕恣升降 此理復何爾 城北有清河 河伯三女美 擊出鴨頭波 往遊熊心溪 鏘琅佩玉鳴 綽約顏花媚 初疑漢臯濱 復想洛水沚 王因出獵見 目送頗留意 茲非悅紛華 誠急生繼嗣 三女兒君來 入水尋相避 擬將作宮殿 潛候同來戲 馬搗一畫地 銅室欻然峙 錦席鋪絢明 金罇置淳旨 躡躡果自入 對酌還徑醉 王時出橫遮 驚走僅顛躓 長女曰柳花 是爲王所止 河伯大怒噴 遣使急且駛 告云渠何人 乃敢放輕肆 報云天帝子 高族請相累 指天降龍馭 徑到海宮邊 河伯乃謂王 婚姻是大事 媒贄有通法 胡奈得自恣 君是上帝胤 神變請可試 漣漪碧波中 河伯化作鯉 王尋變爲鱗 獵不待跬 又復生兩翼 翩然化爲雉 王又化神鷹 博擊何大鷲 彼爲鹿而走 我爲豺而趨 河伯知有神 置酒相燕喜 伺醉載革輿 并置女於輪 意令與其女 天上同騰轡 其車未出水 酒醒忽驚起 取女黃金釵 刺革從窅出 獨乘赤霄上 寂

남녀의 결연이나 혼인을 주제로 하는 옛이야기의 전통 문법 안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결합한 남녀는 안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대체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절차가 전개된다. 물론 그 인정은 해모수가 '변신 능력'을 보여 그 비범함을 증명하기였기에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해모수가 유화에게 직접 구혼하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인 하백에게 구혼한다는 점이다. 혼인은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짝으로 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에서는 '중매'와 '폐백' 같은 혼사를 구성하는 사회 예법이 존재한다. 게다가 혼인 자체가 '집안의 대사'(婚姻是大事)로 여겨지는 문화에서 자녀의 결혼은 곧 '성인식'과 같다. 이는 그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성인으로 여겨지거나,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개체로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반드시 양쪽 집안의 동의와 사회적 의례를 통해 두 남녀가 성인이 되어 결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혼인은 두 남녀가 성인이 '되어서'(되었으므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집안과의 합의적 절차 및 사회적 의례의 결과인 것이다. 혼인은 두 남녀가 부모의 '허락'을 통한 '혼례식'을 치름으로써만 인정된다. 이것이 혼인 관계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자 증거이다. 앞서 보았듯이, <도량선비청정각시>의 두 부부는 혼인 전에 만나 애정을 나누지 않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단지 양가 부모의 혼담과 허락을 통해 혼례식을 치렀다는 것만으로 둘은 죽음을 뛰어넘는 결합을 한다. 반면, 해모수와 유화의 결합처럼 부모 몰래 이루어진 육체적 결합은 결코 혼인이라 할 수 없으며, 부부라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아합은 오히려 금기시된다. 해모수가 무척 임하게 하늘로 도망가 버리자 하백은 급기야 딸 유화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을 석 자로 길게 늘여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별까지 내린다.

<우렁각시>, <선녀와 나무꾼>에서 주인공 부부는 모두 남자 인물의 일방적 요구로 혼인한다. 비록 남편 가족(어머니)의 허락이 전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렁각시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용왕’이나 선녀의 아버지인 ‘옥황상제’의 허락은 구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남편은 나중에라도 처가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나무꾼은 옥황상제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녀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통과하고, 우렁각시의 남편은 원님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용왕(각시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위로 인정받고 우렁각시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아내 내기 시험형)¹⁹⁾. 물론 이야기에는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나무라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더 문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쪽 집안의 ‘부모’나 ‘가족’이 두 사람의 ‘혼인 인정’ 과정에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화뿐 아니라 고전소설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남녀결연을 주제로 하는 고소설에는 두 사람의 결합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기약(期約)과 결말로서 ‘결합’ 단계가 있다. 기약은 집안이나 사회의 공인(公認)을 위해 훗날 결합을 약속하고 기다리는 부분이며, 결합은 서로 상봉하여 집안이나 사회의 공인을 받고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부분이다.²⁰⁾ 곧 설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두 남녀 주인공의 온전한 결합은 부모의 인정 및 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행복한 결말을 위해 전제되는 조건이다.

19) <우렁각시>의 ‘아내 내기 시험형’에서 각시의 아버지인 용왕이 주인공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원님이나 임금의 사위가 이기게 해줌으로써 자기 딸의 남편으로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여기서 남편은 원님(임금)을 이김으로써 우렁각시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사회적 평가(시기, 질투를 부르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를 극복하고, 동시에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혼인인정을 받는다.

20) 김종근(2009), 앞의 논문, 11쪽. 필자는 한국의 고소설의 남녀결연서사의 구조를 <인식-구애-결연-기약-장애-극복-결합>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2) 비슷하지 않은 조건의 남녀 결합

현대인들은 남녀가 혼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혼사에서 신랑 신부의 애정은 혼인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혼기가 차면 집안끼리 사주단지를 주고받아 부모가 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작 혼인할 당사자들은 혼례 당일에 자신의 배우자를 처음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풍습은 혼인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관계 맺음이었음을 뜻한다. 당연히 부부가 될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두 사람의 애정보다 집안에서 선호하는 모종의 조건들이 혼인 성사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주로 양쪽 집안의 형편이나 수준의 비슷함을 의미한다. 2장에 변신 모티프의 기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결합은 차이를 완화하는 변신을 통해 먼저 이루어진다. 이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건들의 차이는 한쪽의 성장과 변화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변신을 통해 극복됨으로써 온전한 결합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혼인은 부부의 애정, 사랑과 같은 정념의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동일성'이나 '어울림'의 차원에서 인식된다. 그리고 비슷함, 어울림을 이루는 조건에는 사회적·세속적 가치들이 포함된다. 외모, 가문, 지위, 재산, 능력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한쪽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의 이야기, 곧 '혼인 인정' 모티프는 부모의 허락은 물론 두 사람 간의 차이를 없애는 균형 찾기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사위에게는 남성성을 드러내는 어떤 능력이, 며느리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외모, 집안을 일으킬 부(富)의 축적 혹은 이를 가능하게 할 지혜가 요구된다. 애초부터 부모는 자기 자녀가 훌륭한 배우자를 맞이하길 바라므로 이야기에서도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은 사실상 기준이 높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어떠한 간에 자녀의 짝이 될 배우자가 가진 결핍은 결

코 용납되지 않으며, 그 간격은 반드시 좁혀져야 한다.

<두꺼비 신랑>은 사실 사위 관련 설화 중에서 못난 사위를 맞이한 처가 식구들이 사위를 푸대접하다가 사위가 일정한 업적을 이룬 뒤에야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제대로 대접하는 이야기²¹⁾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꺼비 신랑은 두꺼비 가죽을 벗고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야 처가 식구들에게 대접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그들 부부를 보며 느끼는 종간 차이를 소거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유능한 남성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못난 사위가 순식간에 잘난 사위로 인정받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못난 며느리도 구박당하다 같은 방식으로 시집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이야기가 있다. 설화에는 <방귀 잘 끼는 며느리>부터 <인정받는 며느리> 이야기류²²⁾가 있고, 고전소설에는 <박씨전>이 대표적이다. 이들 부류의 공통점은 며느리의 행동이나 외모가 탐탁지 않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모두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외면하지만, 결국에는 집안과 나라에 닥친 어려움을 며느리가 해결하거나 집안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며느리를 집안 식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씨전>의 경우에는 박씨 부인이 못난 얼굴을 벗고 아리따운 얼굴을 되찾자 부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던 남편이 사죄하며, 호란(胡亂)이 일어났을 때 박씨 부인이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자 임금은 물론 온 집안이 그녀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옛이야기에서 보통 사람에 비해 무언가 부족한 자질을 지닌

21) 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사위와 처가의 관계, 이야기의 통과외례적 성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58집, 한국구비문학회, 2020, 245~298쪽 참고. 이 논문에서는 사위 관련 설화의 유형으로, <처가를 욕보이는 사위>, <처가로부터 덕보는 사위>, <처가에 득이 되는 사위>를 설정하였는데, 이 세 가지 유형들에 '나중에 대접받는 사위' 이야기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22) <정승집 며느리의 슬기>, 『대계』 7-4, 160~162쪽, <천상 사람인 이인(異人) 며느리>, 『대계』 7-4, 295~301쪽, <북진 며느리와 생금장>, 『대계』 7-1, 58~63쪽 등.

인물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래서 그러한 인물이 나중에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해내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면 큰 상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 본고는 남녀의 결합 및 부부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우열 관계, 곧 잘나고 못남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미 남녀가 결합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강조된다. 현실 세계와 같이 외모, 지위, 지식, 능력, 재산 등이 가장 유력한 평가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구렁덩당신선비>, <도량선비청정각시>처럼 결합하려는 양자 간의 개별 성숙도나 존재의 차이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의 남녀결연서사 전반을 형성하는 세계의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는 시선이며, 그러기 때문에 향유층은 이야기를 구연하고 듣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상하거나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두 존재가 하나로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짜이 맞아야’ 한다. 곧 ‘비슷해져야 한다’. 그 어떤 차이도 이야기는 그대로 두지 않으며 그것은 변신이든 변화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극복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렁각시>의 원혼형처럼 부부의 관계는 파국에 이른다.

4. 혼인풍습의 굴레: 비슷함을 안전으로 승인하는 권력

한국의 혼인 문화에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필수이며, 그 허락은 남녀가 서로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야기들을 통해 보았듯이, ‘비슷한 조건’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은 물론 두 사람의 정신적 성숙의 정도도 포함된다. 남녀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건이 비슷해야 하고, 그러한 결합은 반드시 부모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옛이야기가 있다. 바로 <쥐(두더지) 사윗감 찾기>이다.

쥐 부부가 어여쁜 딸을 낳고 키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대상을 찾아다녔다. 먼저 하늘에 뜬 해가 대단해 보여 해에게 물으니, 해는 구름이 덮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 구름이 더 훌륭하다고 하였다. 쥐 부부는 구름에게 찾아가서 딸의 신랑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구름은 바람이 불면 자기가 흩어지고 마니 구름이 더 힘이 세다고 한다. 쥐 부부가 바람을 찾아가 물어보지만, 바람은 자기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돌미륵이 있으면 못 가니 돌미륵이 더 훌륭하다고 한다. 쥐 부부가 돌미륵을 찾아가 딸을 시집보내고 싶다고 하니 돌미륵은 두더지가 구멍을 뚫으면 자기가 무너지고 마니 두더지가 더 힘이 세고 훌륭하다고 한다. 결국 쥐 부부는 동족의 두더지 신랑을 찾아 딸을 혼인시킨다.²³⁾

이야기에서 딸인 쥐의 혼사를 주도하는 인물은 쥐(딸)의 부모이다. 딸은 나이가 혼기에 이르렀어도 스스로 신랑감을 고를 권리가 없으며 허락되지도 않는다. 또한 부모는 딸의 미모에 버금가는 훌륭한 하고 힘센 신랑을 찾고자 한다. 사실 딸의 미모에 버금가기보다 오히려 조건이 훨씬 훌륭한 배우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돌고 돌아 쥐의 부모는 자신들과 똑같은 종족인 두더지가 최고인 것을 깨닫고 두더지 신랑을 사위로 맞아들인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한국의 혼인 문화의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정확히 반영한다. 두 남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해야 하며, 조건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이 따라야 혼인할 수 있다. 여기서 ‘비슷함’은 두 사람의 영속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안전’이자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성인식으로서 혼사를 주도하고 ‘승인하는 권력’으로 등장한다. 사실 해당 문화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당연한 세계의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 옛이야기가 그리는 세계의 맹점

23) <쥐의 혼인>, 『대계』 1-7, 310~312쪽. <쥐의 배필은 두더지>, 『대계』 6-2, 776~780쪽. <쥐와 두더지의 혼사>, 『대계』 7-4, 77~78쪽. <두더지 신랑 고르기>, 『대계』 8-1, 305~306쪽. <두더지의 혼인>, 『대계』 8-6, 53~56쪽.

이 그러하다. 해당 집단이 지향하고 동의하는 일정한 규칙이 이미 설정되어 이야기의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비슷한 이야기를 비교 대조해 보면 이 두 가지의 특징적인 요소는 한국적 서사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²⁴⁾

본고에서 한국의 남녀결연서사에 나타나는 부모의 허락, 신랑 신부가 가진 조건의 비슷함을 혼인의 굴레로 바라보고 문제 삼는 것은, 변신-이물 교환-혼인인정으로 이어지는 모티프들의 연쇄가 사실은 현대의 서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일 드라마와 연속극에는 한동안 빈부의 계급 차이 속에서 결합하지 못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한 소재였다. 재벌 남자와 가난한 집안의 똑똑한 여자, 혹은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의 유능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는 앞서 다루었던 <인정받는 며느리>류 이야기와 <나중에 사위 대접받는 신랑>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는 재벌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써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야 하며, 결혼 후에도 그러한 인내와 능력 테스트의 과정은 이야기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안의 남자는 부잣집 딸의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

24) 김근태,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7쪽 참고. 인도의 이야기 <암쥐 이야기>에서는 주체가 차이를 무화(無化)하는 변신을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모든 존재는 자기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중국의 <노서가녀>(老鼠嫁女) 이야기에는 생쥐를 변신시켜 어여쁜 딸로 키운 노인이 쥐를 시집보내려고 하지만, 딸은 자기 분수를 모른 채 자신보다 더 훌륭한 배우자만을 원한다. 결국 쥐가 제일 강하다고 하여 시집보내려고 하나, 딸은 쥐구멍이 너무 작다고 거절한다. 노인은 결국 자기 딸을 다시 생쥐로 변신시켜 쥐에게 시집보낸다. 짝이 될 배우자의 비슷함이 여전히 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은 우리 설화와 다르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중국의 쥐 시집보내는 날 민속 유래가 더 강조된다. 중국의 이야기는 일면 한국의 <쥐 신랑 찾기>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중국의 쥐 이야기에는 혼인을 위해 결국 다시 쥐로 변신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 때문에 ‘욕심 부리는 일을 경고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 소재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눈여겨보고 즐긴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남녀 관계, 혼인 문화에 짙게 드리워진 배경이자 규칙이다. 근현대 영화나 문학을 통해 접하게 되는 서구의 자유로운 남녀 관계와 결혼 문화²⁵⁾와는 대비된다.

그런 점에서 이광수의 『무정』(無情)이 한국의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무정』은 한국의 근대 소설에서 처음으로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연애소설의 대가라고 호칭될 만한 춘원의 처녀장편 「무정」은 특히 과거의 보수적인,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연애풍속도를 그린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었다...(중략)...구파에 속하는 인물이 그 결혼제도하에서 얼마나 ‘무정’한 인생행해를 강요당해야 하는지를 마음껏 폭로하는 동시에 신식 결혼관과 애정관을 지닌 쪽으로 그 비극해결의 출로를 제시했다. 그리고 구파를 대표하는 인물을 박영채요, 신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남성에 이형식이요, 여성에 김선형이다.²⁶⁾

‘연애’(戀愛)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귀’을 뜻한다. 어떤 점을 서로 좋아하였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 말에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과 거기에서 비롯된 만남의 행위와 관계가 연상된다.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얽매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을

25) 물론 모든 경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서구에서도 시대와 계층에 따라 혼인 문화는 달랐다. 중세와 근대로 올수록, 계급이 높을수록 혼인풍습은 보수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목적에 기인한다. 시대가 고대일수록, 신분이 낮을수록 남녀의 만남이나 혼인은 보수적이지 않다. 다만 근현대의 서구의 남녀 연애나 혼인 문화에는 부모의 간섭이 한국처럼 짙게 나타나지 않는다.

26) 김우중 편저, 『문학의 이해』, 덕성여대 출판부, 1994(10쇄), 208쪽.

‘자유연애’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은 이 말을 언급하는 일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파격적인 남녀 관계였다. 부모(집안)의 허락과 각자의 비슷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혼인 문화에서, 자유연애는 그러한 굴레를 벗는 해방과도 같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집안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싶은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점(조건과 관계없이), 둘째,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대외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혼사장에 고소설에서 두 주인공이 부모의 허락 없이 만나 애정을 서로 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몰래’ 만나야 한다. 혼인 전에 두 남녀가 남들 눈에 띄게 만나는 풍조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러한 남녀의 사적인 만남은 윤리적으로 온당치 않게 여겨졌고, 부모와 집안의 규율에서 어긋난 행동이라 여겨졌다. 또한 자유연애의 관점에서 한 사람을 좋아해서 만났다가도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진다 한들 그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이성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반드시 혼인하여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이는 1910년대, 1920년대에 불었던 ‘연애’ 풍조와 남녀 사랑의 열정에 관한 유행에도 관련된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 ‘연애’는 전근대적 사랑과 구별되는 신문명적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로...(중략)...낯설고 새로운 사랑의 형식을 표상했던 ‘연애’는 발달한 문명을 상징했던 서구의 사랑 형식에 대한 동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통사회로부터 축적된 혼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결합했으며, 추하고 점잖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남녀의 사랑을 신성하고 지고한 것으로 격상시켰다. 연애는...(중략)...그동안 언급이 기피되고 있던 남녀의 사랑을 공식적 담론 위로 부상시킬 수 있었지만,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호였다. ‘연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스런 사랑을 가리키는 표상이었으며, 최종적인 결정물로서의 무엇이라기보

다는 문명화된 삶의 신성한 이미지에 의해 접근되는 문제적인 시각의 집결지였다.²⁷⁾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서양식 교육을 받은 남녀가 많아지게 되면서, 지식인 청년과 신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현실 세계의 청년들에게 짜릿한 경험이 되었다. 게다가 근대 소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사랑은 ‘연애’ 행위를 통하여 구현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제 경험으로서가 아닌 소설을 통해 알게 되는, 어쩌면 상상하거나 소망하는 사랑으로서 표상되었던 것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문화와 법제를 새로 부는 바람과 분위기로 모두 변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연애 바람이 불었던 식민시기의 혼인 문화를 살핀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경우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이며 집안 어른들이 서로 걸맞은 집안이라 여겨 교제를 지원한 극소수의 경우 이외에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결과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 연애의 현실이라 확산되기 어려웠던”²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비록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서, 자유연애라는 개념을 접하게 된 청년 남녀들은 오랫동안 분출하지 못했던 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소설(이야기)을 통해 충족했을 수 있다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²⁹⁾ 보수적인 혼인 문화든 자유연애의 풍조

27)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1쪽.

28) 유가효, 「일제시대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변화」, 한국학논집 36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10쪽.

29) 한편, 식민지 시기 유행했던 괴담(怪談)이 바로 이 시기에 코드화된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내재된 위험과 불안을 반영했다는 논의가 있어 흥미롭다. 이주라, 「식민지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권, 2013, 293~321쪽. 결론적으로 1920년대 전후로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곧 자유연애 개념은

든 이러한 사회문화의 양상은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 세계에 어떻게든 반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남녀결연서사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바라보는 시선과 혼인 문화의 특성은 사실 오랜 시간 우리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에, 그것의 뚜렷한 연원이나 형성 배경을 짚을 수는 없다. 다만, 이야기들을 형성하는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모티프들의 연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녀결연서사에서 두 남녀가 갖춰야 하는 ‘비슷함’은 ‘변신 모티프’로서 극복되지만, 변신 주체가 수행하는 변신 행위 자체는 비범함을 지니므로 여전히 두 남녀 간의 ‘차이’를 남긴다. 그러므로 비범하지 못한 한쪽 배우자의 성장 및 성숙으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균형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은 능력의 발현과 그것을 평가·인정하는 권력으로서 부모(집안) 및 사회적 시선을 동반한다. 곧 유능한 인물이 자녀의 짝으로 맺어짐으로써 모든 불균형이 제거되고 두 사람의 결합이 완성된다. <표 7>은 이러한 모티프들에서 나타나는 인물 관계의 속성과 소재들이 어떻게 연쇄되어 나타나는지를 제시한다.

<표 7> 혼인 성립을 향한 이야기의 구조와 연결
차이와 불균형 → 비슷함과 균형
/변신/

부모의 승인 → 혼인 관계 성립
(자녀의 미독립) → (자녀의 독립)
/성인식: 통과의례, 겨루기/

그러므로 이야기에서 혼인은 두 남녀의 사랑이나 정(情)의 차원이 아닌

상당한 열풍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전통 혼인 문화의 억압성은 구술전통 담화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과 ‘인정’의 문제로 수렴된다. 이는 수많은 혼인인정, 배우자 찾기(신랑감·사윗감·며느릿감 찾기 등), 이물교혼 등의 소재 서사에서 혼인이 마치 통과 의례와 성인식으로서 다루어지는 현상과 연결된다. 남녀의 혼인 관계를 승인하는 권력으로서 부모의 존재는 아직 부모 곁에 머물러 있는 자녀와 그들의 미성숙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인공의 성인식으로서 혼인이 성립되려면 자녀의 능력 발휘 및 독립을 위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 남녀의 결합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조건의 ‘비슷함’과 관계의 ‘균형’은 두 사람의 ‘차이’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변신’을 통해 극복되거나 혹은 좌절된다. 변신 행위 자체가 지속적인 차이와 변화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의 남녀결연서사는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모티프들을 이야기에서 활용하며 혼인 관계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한국의 남녀결연서사에서 고난과 굴곡, 시험과 경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달리 보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부부가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옛이야기들에서 남녀 주인공이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옛이야기가 가장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삶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대개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사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남녀결연서사 중에 주로 설화에서 자주 발견되는 몇 가지 모티프들, 변신-이물교혼-혼인인정 소재들이 결합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들이 서사에서 기능하는 역할을 밝히고, 그럼으로써 이야기에서 혼인관을 구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살폈다. 먼저 2장에서는 변신 모티프가 결합하려는 두 인물 사이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결합을 가능하게 함을 보았다. 그러나 이물교혼의 경우에는 변신 주체의 비범성 때문에 둘의 관계가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기에, 다른 한쪽의 성장으로서의 변신이 다시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불균형이 극복되지 못할 경우, 변신은 오히려 둘의 차이를 심화시킴으로써 결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곧 한국의 남녀결연서사에서 결합하려는 남녀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어야 하며, 때문에 특히 이물교혼 모티프가 동반되는 이야기에는 생물학적 중간 차이를 해소하는 ‘변신’ 모티프가 반드시 결합됨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혼인인정 모티프가 두 남녀의 결합을 시기·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주변 인물들을 내세우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반대 인물들은 사실 혼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야기에서는 주로 우등한 쪽의 배우자 가족으로 나타난다. 남녀 주인공들은 대체로 부모의 ‘허락 없이’ 결합하였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부족해 보이는 ‘불균형’을 이룬다. 이는 남녀의 결합에 부모가 개입되고 비슷한 조건의 짝을 찾으려는 한국의 혼인 문화를 반영한다. 4장에서는 자녀의 혼사를 주도하는 부모의 권력, 혼인 주체들 간의 애정보다는 다른 조건들의 비슷함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배우자 선택 문화를 지적한다. 이는 근대에 ‘자유연애’라는 신기한 용어를 탄생시킨 전통적인 혼인의 굴레이지만, 현대의 대중서사인 영화, 드라마 등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실제 혼인 풍조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의 뿌리깊은 문화적 사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구술 전통담화의 지속성과 의의를 시사한다. 또한 설화를 비롯한 근현대 서사들이 당대 혼인 관습으로서 비슷함, 혼인을 인정하는 권력(안전성)을 반영하면서도,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 다른 조건의 결합이나 혼인 주체로서의 독

립이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신분이 다른 남녀의 결합이 균형(비슷함)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한쪽이 성장함으로써 그 차이를 소거하고, 이로써 균형(행복)을 이루게 된다는 서사는 자유로운 애정 관계를 지향하고 성장시키면서, 이를 제한하는 문화적 규율 및 관습과 투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³⁰⁾ 본고에서 다룬 설화에 나타난 혼인관이 사실 한국 특유의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에는 부모나 가족이 개입할 수 있으며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인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식이 특정한 모티프들을 통해 남녀결연서사를 형성하는 방식과 기능이다. 곧 결연 주체들의 차이와 비슷함은 이물교혼과 변신 모티프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검증은 겨루기 혹은 시험담 등의 혼인인정 모티프를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30) 이와 같은 해석은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한 분의 조언을 통해 가능했다. 설화와 근현대 서사의 연결 및 혼인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해 주신 심사위원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참고문헌

『국역동국이상국집』I 「동명왕편」, 민족문화추진회,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학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물교혼 모티프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1집, 이화어문학회, 1990, 173~203쪽.

김근태, 「쥐(두더지) 혼인담의 서사적 의미와 문학치료 활용」, 『문학치료연구』 제2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7쪽.

김용선,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 속 ‘허물’과 ‘내 고행’의 의미 - 동물 토렘에서 기인한 가부장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69권, 온지학회, 2021, 111~139쪽.

김종근, 「남녀결연서사 유형에의 기초서사 이론 적용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1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9~34쪽.

김우중 편저, 『문학의 이해』, 덕성여대 출판부, 1994(10쇄), 1~454쪽.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1~82쪽.

민선홍, 「민담 <구렁덩덩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결혼 후 통과의례담의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제56집, 한국구비문학회, 2020, 5~34쪽.

박병완, 「婚事障碍小説에 나타난 結婚觀 研究- 「숙향전」·「白鶴扇傳」·「정을선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1권,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93~326쪽.

서은아, 「<구렁덩덩신선비>를 이용한 부부상담의 가능성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과 교육학회, 2006, 181~212쪽.

손찬식, 「문학:고대설화에 나타난 혼사장애의 성격」, 『온지논총』 11권, 온지학회, 2004, 43~62쪽.

신연우,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결혼 상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21~150쪽.

유가효, 「일제시대 결혼결정과정을 통해서 본 결혼문화의 변화」, 한국학논집 36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1~19쪽.

유진아, 「우렁각시 설화의 결연형 증가와 세속화 양상-『한국구비문학대계』와

- ‘개정·증보 사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70집, 동양고전학회, 2018, 467~493쪽.
- 이동희, 「<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해석: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남녀 관계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독서치료학회, 2015, 117~128쪽.
- 이승민, 김정애, 「신선비를 중심으로 본 설화 <구렁덩덩 신선비>의 불균형적 관계 맺기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6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37~71쪽.
- 이원영, 「<두꺼비 신랑> 설화 속 인정욕구와 변신의 대응양상」, 『동방학』 제3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4, 195~228쪽.
- 이주라, 「식민지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93~321쪽.
- 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사위와 처가의 관계, 이야기의 통과례적 성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5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245~298쪽.
- 조은상, 「<구렁덩덩신선비>의 각편유형과 자기서사와의 관련 양상」,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2001, 291~327쪽.
- 조홍윤,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통해 본 ‘관계 맺음’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43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6, 191~230쪽.
- 한양하, 「<도랑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67~100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marriage through motifs
in tales of 'Tied in Wedlock' in Korean Oral Literature

Jeon, Ju-hee

Universally, motifs and tales in oral literature reflect the ideas, values, ethics and worldviews of some people who have made the stories, so such stories as oral literature are quite conservative. These natures of oral literature can be great clues to see the perspectives and concepts of some people about something. This study is focused on motifs in tales of 'Tied in Wedlock' in Korean oral literature, especially, including motifs of metamorphosis - marriage between different species - marriage obstacle. These motifs tend to combine very well in many stories and it can also mean a tendency of the concept of marriage in Korean culture. In chapter 2, the metamorphosis motif alleviates the difference between brides and grooms in tales. It, however, can also deepen the difference between them so that they are finally separated forever. Therefore, the 'metamorphosis motif' plays a role in alleviating or deepening the differences between brides and grooms, and it is almost always accompanied by a 'motif of marriage between different species' in tales. In Chapter 3, I discuss the social code of marriage in Korean culture by focusing on the surrounding figures who are jealous, disturb protagonist couples or approve of their marriage. These figures in the 'marriage obstacle motif' symbolize the social code or standards of the Korean marriage culture. In this system, some couples are rejected without any acknowledgment as a formal married couple. For instance, couples without any permission of their parents and couples with some gap in any aspect like social status, property, appearance or knowledge. These two conditions are crucial in approving married couples in Korean society. In conclusion, brides and grooms have to share some similarities in their conditions or levels to

marry each other and they also only can be approved as a married couple formally by their parents. Here the similarity means a kind of balance and approximated in some level between a couple. The parents' power of approving children's marriage makes a premise of their children immature, so children who are about to marry need to pass a rite of passage, where they have to show their ability and maturity to be adults who can be great spouses. This is why the combination of motifs with metamorphosis-marriage between different species-marriage obstacle works in tales of 'Tied in Wedlock' in Korean oral literature.

Key Words tales of 'Tied in Wedlock', motif, metamorphosis, marriage between different species, marriage obstacle, approximated, balance

논문투고일: 2024.06.30.
심사완료일: 2024.08.05.
게재확정일: 2024.08.08.

